

# 實學派 學人 洪大容의 中國 建築觀과 北京 朝鮮館에 관한 연구

韓 東 洙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조교수)

주제어 : 조선시대, 실학, 홍대용, 중국건축, 조선관

## 1. 서 언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왔고 여러 차례 그 교류의 절정에 도달했던 시기가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남북조 시대에는 당과의 교류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송과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으며 이후 등장한 원과는 부마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중국과의 교섭은 조선시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명과 청으로 매년 공식, 비공식적인 사신들의 잦은 방문이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는 상대방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체 문화와 융합하여 결국 하나의 공고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특히 삼국시대 불교의 전파와 승려의 성지순례, 고려시대 상인들의 왕래, 역대 왕조의 사신들의 상호방문 등은 당시 문화의 전파와 교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매개체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물질적인 교류보다도 서로의 문화를 피부로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인적인 왕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

을 포함한 양국 간의 문화 전반에 관한 교류사를 연구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연행사의 일원이었던 홍대용(洪大容: 1731-1783년)이 남긴 문집 《담헌서(湛軒書)》<sup>1)</sup>의 고찰을 통해 당시 홍대용의 북경을 향한 여정과 중국 건축관을 분석하고 그가 체류했던 북경 조선관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국건축사학계는 일찍이 조선시대 실학자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연구의 방향은 주로 그들의 과학사상이 조선시대 건축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도입이라고 하는 한국건축사의

1) 《담헌서》는 홍대용의 글을 모은 문집으로서 원래는 15분책의 필사본이었으나 저자가 죽은 지 157년이 지난 1939년 서울 신조선사에서 담헌 자손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을 대본으로 삼아 내집 4권 2책, 외집 10권 5책의 활자본을 출판하였다. 이것은 19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한글번역본을 간행하였으며 1967년에는 우리나라의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도 고전국역총서의 하나로 한글번역본을 간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번역문과 원문을 대조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필자가 수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 것은 외집 8, 9, 10권이다. 그리고 한글본 《주해 울병연행록》(소재영, 조규익, 장경남, 최인항 주해, 태학사, 1997년)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보았던 당시의 중국건축에 대한 묘사는 실물이 많이 사라지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진 오늘날 보다 한중고대건축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홍대용의 학풍과 조선시대 실학의 흐름<sup>2)</sup>

### 2-1. 홍대용의 학풍

홍대용은 봉건 양반계급의 출신으로 본관은 경기도 남양이고, 호는 담헌(澹軒) 또는 홍지(洪之), 자는 덕보(德保)이다. 1731년에 태어나서 1783년에 5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조선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서인 노론 보수파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명성을 날리던 미호(羨湖) 김원행(金元行: 1702- 1772년)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다. 또한 실학파의 큰 흐름<sup>3)</sup> 가운데 이용후생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연암(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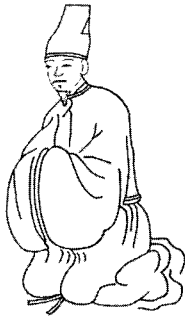


그림1. 중국인 친구 엄성(嚴誠)이 그린  
홍대용의 초상화(필자 부분 수정)

2) 이 부분의 내용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번역한 《담헌서》의 해제부분과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출판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실학> 및 <홍대용> 항목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3) 실학파의 주장과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이익을 대종으로 하는 경세치용파,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후생파, 김정희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게 된 실사구시파로 대별된다.

암) 박지원(朴趾源: 1737 -1805년)과 친교를 맺기도 했다.

조선의 실학은 반계(圃溪) 유형원(柳馨遠: 1622-1764년)으로부터 출발하여 18세기 초에는 성호(星湖) 이익(李滉: 1682-1764년)을 중심으로 하는 실학의 한 시기가 이루어졌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63년)을 중심으로 하는 실학의 또 한 시기가 형성되었다. 바로 이 두 시기의 중간에 홍대용은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년), 형암(炯庵) 이덕무(李德懋: 1741-1793년) 등과 더불어 실학의 또 한 줄기를 형성하였다.

그가 생존했던 시기는 조선 근대 실학의 개화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775년 음보(蔭補)로 선공감(繕工監)의 감역이 되었고 그 이후 세손익위사시직(世孫翊衛司侍直), 감찰, 현감을 거쳐 1780년에는 군수의 직위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정조 41년(1756년) 숙부인 홍익(洪億)이 서장관의 신분으로 청에 갈 때 자제군관으로 수행을 하였다.

그는 천문, 율력, 수학, 군사,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쳐 두루 조예가 깊었다. 특히 조선 사회에서 이른바 잡학으로 불리던 천문, 율력, 수학 등의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세계관은 튼튼한 자연과학의 입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뜻은 등문헌(鄧汶軒)이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의 한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대용은 10세 때부터 옛 학문에 뜻이 있었으며 글귀의 분석과 해석에 열중하는 융통성 없는 선비가 맹세코 아니며 국방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동경했다.”<sup>4)</sup>

4) “容自十數歲,有志於古學, 誓不爲章句迂儒,而兼慕軍國經濟之業.”(《澹軒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 번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발행, 평양, 1960년, 5쪽)

이처럼 그는 일찍부터 실천적 학문에 그 뜻을 두고 있었고 공허한 저술로 허영을 탐하는 세속적인 학자들을 실랄하게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담헌설총(湛軒說叢)》이 있고 편서로 《건정필담(乾淨筆談)》, 《주해수용(籌解需用)》, 《담헌연기(湛軒燕記)》, 《임하경론(林下經綸)》, 《사서문의(四書問疑)》, 《항전척독(抗傳尺牘)》, 《삼경문변(三經問辨)》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저술은 사후에 후손에 의하여 간행된 《담헌서》에 모두 수록되었다.

## 2-2. 조선시대 실학의 흐름

조선은 1592년부터 1724년까지 130여년간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년)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년)의 두 차례 국난을 겪은 다음 국력이 소모되고 당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양문물의 동점(東漸)은 선조말기에 시작되어 인조시기에 빈번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서양문물의 이입은 세계관의 변화와 자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게 만들었다. 영조원년(1725년)부터 순조말년(1910년)까지의 180년은 조선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의 전반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복구과정을 통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생산력이 다시 회복되고 봉건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조정의 정책을 비판하고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실학은 이러한 시기에 대두되어 실사구시, 경세치용, 이용후생을 목표로 실증적인 것과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또한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지양하여 학문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실학사상의 융성과 더불어 새로운 민족사상이 고취되고 문예부흥의 기운이 농후하여 문화의 정화를 재현함은 물론 사상계가 다양한 측면을 갖게 되었다. 실학사상은 예전에 이학과

경학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전통적인 유학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한 유학의 한 분파로서 영조와 정조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조는 탕평책(蕩平策)을 써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였으며 정조가 만든 규장각(奎章閣)에는 많은 실학자들이 등용되었다. 탕평책은 국민에게 기회의 균등과 여유 있는 생활을 통한 한국 고유의 정서가 더욱 개발되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 같은 문운(文運)의 흥기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청대 고증학의 영향으로 실학은 더욱 융성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실학자들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과학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에서도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의한 결론을 얻는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영건된 수원 화성은 18세기 조선의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탄생된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한 뒤,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고 지방 행정의 문란, 농민의 과중한 세금부담 등은 순조11년(1811년) 홍경래(洪景來)의 난, 철종13년(1862년) 진주민란(晉州民亂) 등을 발발시킴으로서 조선의 국세는 날로 기울고 실학과의 이상은 사라지고 말았다.

## 3. 홍대용의 의주-북경간 연행노정

홍대용은 자신의 나이 35세<sup>5)</sup> 때인 건륭 30년(1765년, 영조 41년) 숙부인 홍억의 연행사행(燕行使行) 때 군관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다. 조선의 국도 한양을 떠나 북경으로 가는 길은 한양에서 의주까지 1,050리이고, 의주에

5) 북한번역본에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임.

서 북경까지 2,060리로서 합치면 한양에서 북경까지의 거리는 모두 3100리에 이르렀다. 대체로 하루의 여정이 평균 70리 정도인데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한양에서 북경까지는 대략 48일이 소모되었고 의주에서는 33일이 걸렸다.

그는 1765년 11월 2일 한양을 출발하여 28일 책문(6)에 도착하였으며 12월 7일 성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12월 17일 산해관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출발하여 10일 뒤인 12월 27일 북경성 동쪽의 조양문에 도착, 중식을 먹고 이문을 통해 드디어 황성에 진입하게 된다. (그림 2.) 《담헌서》에는 매일 매일의 출발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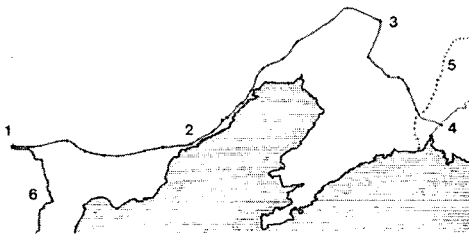


그림 2. 《담헌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필자가 작성한 의주에서 북경까지의 연행노선도 (1.북경 2.산해관 3.성경 4.의주 5.책문 6.운하)

중식지, 숙박지를 구분하여 적어 놓았으며 의주에서 북경까지 걸린 33일 가운데 6일간은 중식지가 없이 여정이 진행되었다. 의주에서부터 북경까지 이르는 홍대용 일행의 노정 가운데 출발지와 중식지, 숙박지는 표 1.과 같다.

홍대용은 처음으로 조선반도를 벗어나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책문을 통해 중국 땅에 들어갔다. 그는 책문에 사는 사람들의 집이나 물건은 거칠고 더러워 볼 만 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초행길에 처음 보는 것들은 모두 눈과 귀를 새롭게 하는 것이므로 사행길의 보람이 여기에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다.<sup>7)</sup> 그러므

로 연행사행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오에서 이탈하여 주변 지역을 탐방하고 새로운 경험을 얻었으며 감회에 젖었다.

표 1. 의주에서 북경까지의 이정표

根據資料: 《湛軒書》外集 卷十 燕記(四)

次序	出發地	中食地	宿泊地
1	義州	九連城	金石山
2	金石山	-	葱秀山
3	葱秀山	-	柵門
4	柵門	-	鳳凰山
5	鳳凰山	乾者浦	松站
6	松站	八渡河	通遠堡
7	通遠堡	草河口	連山關
8	連山關	恬水站	狼子山
9	狼子山	冷井	新遼東
10	新遼東	爛泥浦	十里浦
11	十里浦	白塔堡	瀋陽
12	瀋陽	永安橋	邊城
13	邊城	-	周流河
14	周流河	大黃旗堡	大白旗堡
15	大白旗堡	板門	二道井
16	二道井	新店	小黑山
17	小黑山	中安浦	新廣寧
18	新廣寧	閭陽驛	十三山
19	十三山	大陵河	小陵河
20	小陵河	-	高橋堡
21	高橋堡	連山驛	寧遠衛
22	寧遠衛	沙河所	東關驛
23	東關驛	中後所	兩水河
24	兩水河	中前所	山海關
25	山海關	鳳凰站	榆關
26	榆關	背陰店	永平府
27	永平府	野鷄屯	沙河堡
28	沙河堡	榛子店	豐潤縣
29	豐潤縣	-	玉田縣
30	玉田縣	別山店	薊州
31	薊州	邦均店	三河縣
32	三河縣	夏店	通州
33	通州	朝陽門	-

6) 책문은 한 길 반 정도 되는 나무를 세워 사람이나 말이 지나갈 수 없게 하고 횡목을 낸 것인데 당시 조선과 중국의 경계로 삼기 위해 만든 것이다.

7) 《담헌서》IV, 민족문화추진회, 1974년, 185쪽

#### 4. 홍대용의 북경방문지와 주요 행로

홍대용은 1765년 12월 27일 북경성의 조선관에 도착하여 62일간 머물다 다음해 2월 29일 이곳을 떠났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북경성의 내외성 지역은 물론 자금성 안에도 들어가 보았으며 북경성 서북쪽에 위치한 서산 및 원명원 같은 황가원림까지 두루 답사를 다녔다. 그가 직접 찾아가 경험한 내외성 안의 주요 건물과 지역으로는 안정문, 덕승문, 서직문, 부성문, 선무문, 정양문, 승문문, 조양문, 동직문 등 내성의 성문을 비롯하여 호국사, 용복사, 평인사<sup>8)</sup>, 옹화궁, 법장사 등의 불교사찰, 태학과 순천부학 등의 유교관련 건축, 예부와 홍로시 등의 관아건축, 관상대와 관천대 등의 천문 관측시설, 서양 선교사가 거주하던 천주교당, 자금성의 외조부분, 유리창 지역의 서점가, 지인 엄성이 머물던 간정호동 지역 등을 들 수 있다.(그림 3.)

이 가운데 간정호동은 홍대용에게는 각별한 지역으로서 체류기간 동안 모두 5차례나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은 절친한 친구 엄성이 거주하고 있어 그와 필담을 주고받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조양문은 조선의 연행사절이 북경성을 출입하는 중요한 성문으로 홍대용이 황도 북경성의 웅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받은 첫 장소였다. 그는 북경성의 내성과 외성지역 이외에도 성밖의 서북쪽에 위치한 서산지역과 황가원림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때 이용한 문이 바로 서직문이다. 그것은 서직문이 당시 서산지역으로 나가는 주요한 교통로였기 때문이다.

북경성의 조선관에 도착한 다음날 홍대용은 우선 예부를 방문하여 가지고 온 자문(咨文)을 올렸다. 이날 이후 그는 조선관에 머무는 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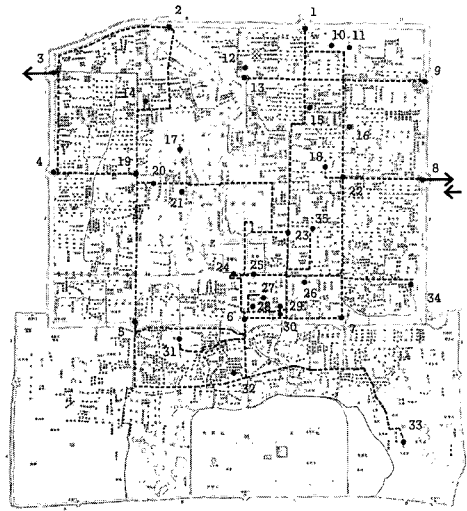


그림 3. 북경에서 홍대용의 주요 행로와 방문지 : 《담헌서》의 기록에 의거하여 1750년대 북경지도 위에 필자작성

- 1.안정문, 2.덕승문, 3.서직문, 4.부성문, 5.선무문, 6.정양문, 7.승문문, 8.조양문, 9.동직문, 10.태학, 11.옹화궁, 12.종루, 13.고루, 14.호국사, 15.순천부학, 16.유친왕부, 17.평인사, 18.용복사, 19.서사패루, 20.서안문, 21.천주교당, 22.동사패루, 23.동안문, 24.서장안문, 25.동장안문, 26.당자, 27.홍로시, 28.예부, 29.천주당, 30.조선관, 31.유리창, 32.간정호동, 33.법장사, 34.관상대, 35.전주당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매일 관을 벗어나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 나섰다. 특히 유학자였던 그는 “...황성 안흔 귀경홀 곳이 만흐디 그 둥 태학이 몬져 보암죽 호고...”<sup>9)</sup>라고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태학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태학을 방문하고는 문운이 왕성하지 않음에 많은 실망을 하고 성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 오랑개의 글씨로 더럽혀져 있다고 통분하고 있다.<sup>10)</sup>

그가 북경성에서 다닌 곳을 살펴보면 조선관을 중심으로 대부분 내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성 쪽은 유리창과 간정호동 지역, 법장사의 세 곳 정도이다. 이는 외성보다 내성에 상대적

8) 홍대용의 기록에는 弘仁寺라고 했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宏仁寺이다. 홍과 평은 중국발음이 같아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9) 《주해울병연행록》 권지삼, 태학사, 1997년, 2334쪽

10) 이처럼 당시 조선의 유학자나 정치인들은 청의 정통성을 내심 부정하고 명을 추종하고자 했다.

으로 중요한 시설이 많이 있었고 홍대용 자신이 관심을 갖고 보고자 하는 대상 역시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5. 홍대용의 중국건축관

홍대용의 중국 건축에 대한 관찰은 《담헌서》의 외집연기(外集燕記) 권십(卷十) 옥택(屋宅) 부분<sup>11)</sup>에 가장 잘 드러나 있으며 그 밖에도 외집연기(外集燕記) 권팔(卷八) 연로기략(沿路記略)<sup>12)</sup>과 경성기략(京城記略)<sup>13)</sup>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도시의 성곽과 가로에서부터 건물의 외관과 배치, 실내공간의 구조, 가구의 진설, 건축재료, 설비는 물론이고 손님을 맞고 배웅하는 예절에 이르기까지 포함하는 대상이 넓고 다양하다.

당시 그가 무엇보다도 크게 놀라움을 표시했던 것은 풍부한 물산을 기초로 발달한 중국 도시의 이미지였다. 연행노정을 통해 크고 작은 도시를 방문하게 되고 또 북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머물며 그는 중국의 도시들이 대부분 거리가 화려하고 복잡하며, 마차의 통행을 위해 넓고 반듯한 가로체계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무질서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구축된 성곽을 보고는 “벽돌을 깔아 포장을 하였는데 평평하고 매끄럽기가 숫돌 같았다. 여장에 기대어 서북쪽을 바라보니 담의 꺾임이 직각에 맞춘 듯하고 끝음이 먹줄에 맞춰 간 듯하고 깎은 듯하여 반점 만큼도 비탈거나 기운 곳이 없었다.”<sup>14)</sup>고 하며 정교한 시공기술을 칭찬하였다. 연행노정

에서 흥미로운 내용 가운데 하나는 중국인들이 요동에서 대평원을 지나가는 큰 길의 좌우에 버드나무를 심어 홍수 시 길을 유지하는 중요한 표식으로 삼았다고 하는 점인데 이는 당시에 이미 가로수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개별 건축의 내외부 형식에 대한 차이점의 발견이다. 중국 건축은 우리 건축에 비하여 화려한 단청과 세밀한 장식이 되어 있으며 크고 웅장하다고 했다. 붉은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단청의 차이를 알게 되었고 금빛, 초록빛으로 장식된 상가 건물의 입면도 홍대용에게는 신기한 것으로 다가왔다. 특히, 외관상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중국 건축이 크고 구조적으로 튼튼하며 부재가 치밀하다는 홍대용의 견해는 박지원 역시 《열하일기》에서 이와 유사한 지적<sup>15)</sup>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건축은 지붕의 용마루가 높고 처마가 낮아 빗물이 잘 빠지며 처마가 짧아 햇빛이 잘 드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특징은 의자와 탁자 같은 실내가구의 진설과 더불어 모두 중국의 입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중국 건축의 들창은 처마가 짧아 방 안으로 달아매고 있다고 하는 지적은 그가 건물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당시 다른 실학자들도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 중국 건축에서 벽돌의 다양한 쓰임인데 홍대용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중국 건축은 합원공간의 바닥은 물론 실내공간의 바닥, 온돌, 아궁이, 외벽 등에 모두 벽돌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실내공간에서의 그가 발견한

11) 원문은 《湛軒書》, 外集燕記 卷十, 10-11쪽

12) 원문은 《湛軒書》, 外集燕記 卷八, 7-18쪽

13) 원문은 《湛軒書》, 外集燕記 卷八, 18-25쪽

14) 기존의 번역물을 인용함(《담헌서》IV, 민족문화추진회, 1974년, 201쪽)

15) “중국의 가옥제도는 두 기둥의 사이가 대단히 넓어서 우리나라의 일반 가옥의 거의 두 칸에 해당한다…척도가 일정하여 대들보, 문지방, 창호를 모두 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다.”(《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유구, 안대희 옮김, 돌베개, 2005년, 206-207쪽에서 재인용)

우리 건축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입식생활과 결합된 항(炕)<sup>16)</sup>의 쓰임과 다락이 발달하지 않아 가구가 많이 배치되고 그 위에 그릇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생활용품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 결과 소박하고 간략한 우리나라의 사랑방이나 안방에 익숙해 있던 그에게 중국 건축은 내부공간이 크고 화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전형적인 북경의 사합원(四合院) 배치를 설명하면서 건물이 모두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꺾어진 곳이 없어 회침이 생기지 않는 점 역시 중국 건축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였다.<sup>17)</sup>

이러한 홍대용의 관찰 결과들은 당시 실생활에서 느낀 중국 건축과 우리 건축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을 밝혀 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밖에 홍대용은 공간의 위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담헌록》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평교(平交) 이상은 모두 대문 밖까지 나와 맞이하고 전송을 했으며 문에 들어갈 때는 손님이 먼저 들어가고 주인은 나중에 들어가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문을 출입할 때는 읍하고 사양을 하는 예절을 지켰다.<sup>18)</sup> 한편, 실내공간에서는 손님의 자리는 온돌 위로 하고 간혹 북쪽의 벽 밑을 내주어 예의를 취했는데 이 점은 오늘날 중국에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원칙이다.

## 6. 홍대용의 북경체류지 조선관

홍대용은 북경성 외곽의 옥전, 계주, 조림, 하점을 거쳐서 12월 27일 조양문을 통해 황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승문문 앞을 지나 서쪽으로 옥하교<sup>19)</sup>를 건넌 다음 조선관에 도착하였다. 당시 조선관의 위치를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선 홍대용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조선관은 전면으로 남쪽 성을 마주하고 있는데 관호를 남관이라고 한다.”<sup>20)</sup>

조선관의 위치를 알려주는 또 다른 기록은 《순천부지(順天府志)》에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명대 사이관은 한림원에 예속되어 있는 관계로 그 터는 한림원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오장원이 이르기를 오늘날의 서삼관 동쪽에 고려인이 기거하는 관사가 있는데 사이관 가까이에 있는 별우가 바로 이것이다.”<sup>21)</sup>

한편, 중산대학의 채홍생은(蔡鴻生)은 북경성 남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이 관사는 동감미항의 옥하교 서가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전신은 명대 남회동관인 고려관이다.”<sup>22)</sup>

16) 홍대용은 “항은 한어로 불 때는 구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주해음병연행록》 권지일, 태학사, 1997년, 41쪽)

17) 서유구는 우리나라 건축에서 자주 나타나는 회침의 결합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유구, 안대희 옮김, 돌베개, 2005년, 197~200쪽)

18) 홍대용은 이러한 예절을 보고 중국에 하운주 삼대의 유풍이 남아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

19) 옥하교는 북, 중, 남교가 있는데 정황으로 보아 옥하남교를 통해 조선관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20) “前對南城，號曰南館。”(《湛軒書》，外集燕記 卷九, 27쪽)

21) “明四夷館隸翰林院，故其地與院相連。吳長元謂今庶常館東有高麗人所居館舍，殆卽四夷館之別宇是也。”(陳宗蕃編著，《燕京叢考》，北京古籍出版社，北京，1991年，177쪽)

22) “這間館舍位于東江米巷玉河橋西街北，其前身是明代南會同館的高麗館……”(蔡鴻生，〈清代北京的俄羅斯館〉，《百科知識》，1986年 第6期，35쪽)

라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고조선관은 원래 명대 한림원과 연결된 남회동관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명대 북경성의 복원지도를 살펴보면 옥하중교 옆, 옥하 서가의 북쪽에 인접하여 남회동관(南會同館)이 한림원과 연결되어 있다.(그림 4.) 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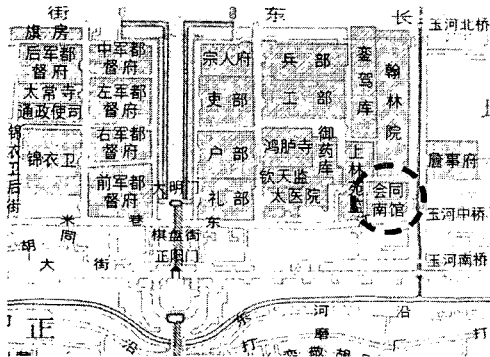


그림 4. 명대 만력-승정연간 북경성 지도에 보이는 회동남관의 위치(《北京歷史地圖集》, 侯仁之, 北京出版社, 1988年, 31-32쪽)

회동관, 즉 고려관은 강희 32년(1693년) 러시아의 남관으로 바뀌어 북경에 온 러시아 상인들의 임시숙소가 되었고<sup>23)</sup> 옹정 10년(1732년) 북경의 선교사단은 여기에 성마리아 성당을 짓는다. 《순천부지》에서 “오늘날(청대)에는 서상관의 동쪽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선관은 1693년 남회동관이 러시아 남관이 된 이후<sup>24)</sup> 서상관 옆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그림 5.)

그 이후 조선관과 관련된 자료로 두 가지의 중요한 지도가 있다. 하나는 《권화기(拳禍記)》에 수록된 것으로 1901년의 상황(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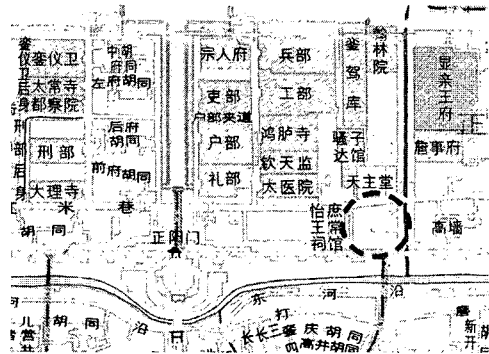


그림 5. 청대 건륭 15년(1750년) 북경성 지도에 보이는 서상관과 조선관의 위치(《北京歷史地圖集》, 侯仁之, 北京出版社, 1988年, 41-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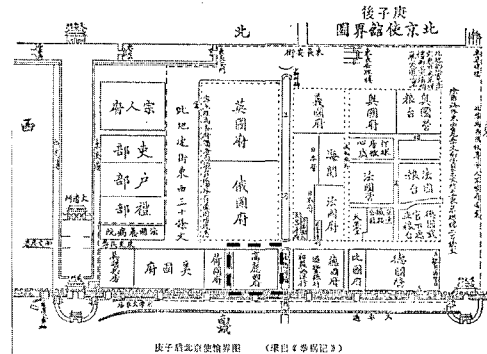


그림 6. 1901년 이후 북경 대사관 경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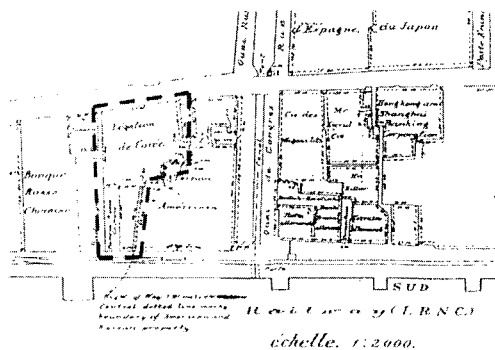


그림 7. 1904년 작자 미상의 프랑스 사람이 그린 북경 대사관 지역 측량도에 보이는 조선관(北京國家圖書館 所藏 資料)

23) 《을병연행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옥하관이니 예부터 도선 스님이 드는 곳이라니 등년의 이르되게 앓겼다 하니 이르되 북방 오랑캐니 코이 별양 크고 흉악한 인물이라.”고 하여 러시아가 강점한 것으로 되어 있다.(《주해을병연행록》 권지삼, 태학사, 1997년, 235쪽)

24) 《北京近代建築史》, 張復合, 清華大學出版社, 2004年, 61쪽



여 조선관의 동쪽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어있는데 이 지역은 미국의 공사관이 설치되었다가 조선인의 손을 거쳐 다시 프랑스 사람의 수중에 들어간 뒤 동방회리은행(東方匯理銀行)으로 개건되었다.<sup>25)</sup>

다음으로 조선관의 건물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산대학의 채홍생은 러시아측의 사료를 인용하여 회동관의 고려관이 러시아의 남관이 되고 난 이후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건물은 중국식인데 네 짝으로 된 문이 있고, 중정의 중앙에는 하나의 큰 객청이 있으며, 그 주위에 영방과 유사한 상방이 열을 지어 있다. 칸수는 소규모의 상인대오가 사용하기에 족하다…두 번째 문과 서쪽면의 세 번째 문 사이의 모퉁이에 한 동의 묘우가 있다…”<sup>26)</sup>(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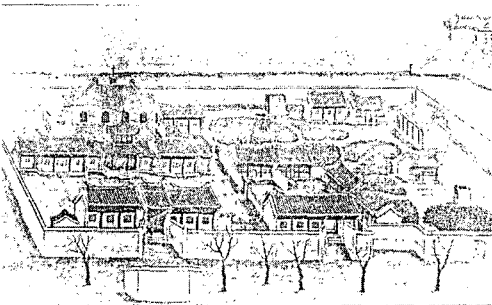


그림 8. 1685년 경 러시아 남관의 전경 (《北京近代建築史》, 張復合, 清華大學出版社, 2004年, 61쪽)

그러나 이것은 고려관이 러시아의 남관으로 바뀌고 이미 22년이 지난 상황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고려관의 원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서상관 옆으로 옮겨간 조선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홍대용은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건물은 네 겹으로 되어 있고 정당에는 자문(공문을 의미함)들과 토산물을 보관하고 상방(정사가 사용하는 방)은 정당 뒤에, 부방(부사가 사용하는 방)은 그 다음에 있으며 삼방(서장관이 사용하는 방)은 부방 뒤에 있다. 나는 삼방의 서쪽 칸 벽쪽의 한 온돌방에 들었다…남관의 큰 대문은 늘 닫아 놓아 연행사 일행의 출입 시 이외에는 열지 않았다. 동쪽에 협문이 있어 아문으로 통한다. 일행의 출입은 모두 이 문을 거쳐 아문으로 가게 된다…”<sup>27)</sup>

이 기록은 비록 상세하게 조선관의 건물 형태와 공간구조를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4개의 중요한 건물을 하나의 축선 상에 일렬로 배치하고 정문과 협문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자료로는 홍대용이 북경을 방문한 시기보다 15년 전에 제작된 건물 15년(1750년)에 그려진 《건륭경성전도(乾隆京城全圖)》가 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중간부분이 희미하여 판독이 불가능하지만 왼쪽의 축선 상에 몇 동의 건물이 남북으로 연결, 배치되어 있으며 오른쪽 부분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담장으로 구획되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왼쪽에는 빈터가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 빈터는 홍대용의 언급에 의하면 하인들이 거쳐하는 샷자리집을 만들고 관용마필을 묶어 두었던 곳으로 추정된다.(그림 9.)

25) 《北京近代建築史》, 張復合, 清華大學出版社, 2004年, 64쪽, 92-93쪽

26) “這所房子是中國式的, 有四扇門, 院子中央是一個大客廳, 四周是一排類似營房的廂房, 間數足夠小規模商隊使用…在第二個門與西面第三個門之間的一個角落里有一座廟…”(蔡鴻生, <清代北京的俄羅斯館>, 《百科知識》, 1986年 第6期, 35쪽)

27) “屋凡四重, 正堂安咨文及方物, 上房在其後, 副房次之, 三房在副房後. 余居三房之西間, 壁一炕…其大門常閉, 非使行不開也. 東有夾門, 以通衙門. 一行出入, 皆由是門通衙門…”(《湛軒書》, 外集燕記 卷九, 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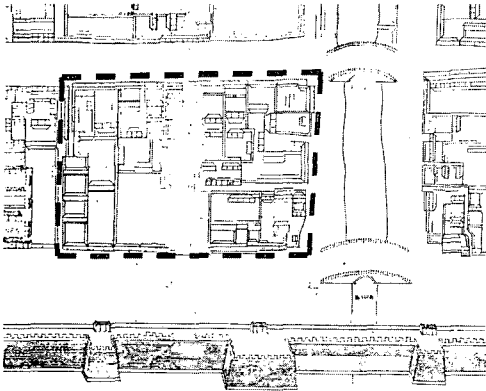


그림 9. 건륭 15년(1750년)의 북경성 지도에 보이는 조선관의 배치도로 점선 안의 부분이 모두 조선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중앙의 공터를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은 관아이고 왼쪽 부분이 조선관으로 추정된다. (《加摹乾隆京城全圖》, 北京市古建築研究所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資料中心, 北京燕山出版社, 1996年, 第十一排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배치가 연행사들이 연행노정에서 노숙할 때 임시로 만드는 숙소와 그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기록에 의하면 “노숙할 때에 상방으로는 몽고 행막을 사용하였다. 길게 에워싸여 종을 얹어 놓은 것 같은데 안에 4-5인이 앉을 만 하였으며 부방과 삼방은 개가죽 막을 쳤는데 겨우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sup>28)</sup>라고 하면서 이어서 “어느 것이나 모두 땅을 파서 판자를 걸치고 그 밑에 숯불을 피웠다.”<sup>29)</sup>라고 하여 간이 온돌 시설의 구조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온돌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강한 집착을 보여준다.

한편, 사신 일행이 산해관에 들어오면 서기를 먼저 황성에 보내 조선관 내의 숙사를 수리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기존의 번역물을 인용함(《담헌서》IV, 민족문화추진회, 1974년, 184쪽)

29) 기존의 번역물을 인용함(《담헌서》IV, 민족문화추진회, 1974년, 184쪽)

“...사신 일행이 산해관에 들어오면서부터 각각 서기로 하여금 먼저 성에 들어와 온돌과 숙사를 수리하게 하였다. 내가 거처할 방도 역시 종려나무로 온돌 위에 증옥을 만들고 종이를 발라 놓았다. 북쪽에는 협실을 만들어 행탁을 보관하게 되어 있고 동쪽이 출입구인데 발을 드리웠고 발 바깥에는 등자를 걸쳐 툃마루를 만들었으며 툃마루 아래에는 샷자리로 둘러친 반 칸쯤 되는 방을 꾸며 마두의 침실로 만들었다. 나의 방 남쪽에는 분합창을 내어 매우 따뜻하고 밝았으며 벽에는 영모 그림이 두어 폭 걸려 있다...”<sup>30)</sup>

이것은 중국식 건축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벽장을 만들고 툃마루를 둔다든지 발을 드리우는 등 내부공간을 조선의 주거형태와 유사한 모습으로 꾸며 놓았음을 보여 준다<sup>31)</sup>.

이러한 조선관은 고려관이라고 더 많이 불렸으며 1904년까지의 자료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사라졌다. 이것은 1905년 일본과의 사이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이 자주적인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홍대용은 연행사행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독학을 통해 중국어 공부를 하였으며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

30) “...自入關一行, 各令書者先入城, 修改炕舍, 亦以棕櫚構重屋于炕上, 并塗以紙. 北爲夾室爲藏行囊. 東爲戶, 垂門簾, 簾外架橙子, 爲短廳. 廳下爲鐵屋半間, 爲馬頭寢處. 南有分閣, 甚濶且明, 壁數幅彩畫翎毛也...”(《湛軒書》, 外集燕記 卷九, 27쪽)

31) 《을병연행록》의 기록에 의하면 “...종려로 책대를 만들고 앞호로 채너 그림 훈장을 붙혔더라. 문넛즈를 드리우고 울나 안즈니 7장 도용하고 정결호야 아국 방사와 다르미 업더라.”라고 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주해을병연행록》 권지이, 태학사, 1997년, 179쪽)

의 활발한 성격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당시 중국 건축에 대한 그의 인상은 그 기저에 오랑캐의 국가 청에 대한 폄하의 감정이 깔려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중국 건축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둘째,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와 가로변의 건축은 정교한 짜임과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 사치스럽다.

셋째, 성벽에서부터 일반 주거의 실내공간에 이르기까지 벽돌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넷째, 합원식의 건물배치로 매우 질서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가로체계 역시 잘 정돈 되어 있다.

다섯째, 입식생활로 인한 실내공간의 규모와 외관이 조선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어 있으며 수장고가 발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당시 북경의 조선관의 위치는 한림원 부근의 회동남관에서 서상관 옆으로 한 차례 이전되었으며 건물의 배치는 중국의 합원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실제 내부공간의 사용에 있어서는 조선의 주거풍습에 맞게 개조를 하여 사용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연행노정의 이동 중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할 때에도 반드시 온돌을 설치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자신의 주거 습관에 대한 강한 집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연행사의 일원이었던 홍대용의 저술을 통하여 당시 그의 눈에 비친 중국 건축의 일면과 북경 조선관의 위치 및 구조를 간략히 추적해 보았다. 향후 조선시대의 방대한 연행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면 조선시대와 명청대 건축사 연구의 기초 자료는 물론 양국간의 교류사 연구에 적지 않은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1. 《湛軒書》，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 번역,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과학원 발행, 평양, 1960년
2. 국역《湛軒書》，(사)민족문화추진회, 서울, 1974년
3. 《주해을병연행록》，홍대용, 소재영 외 3인 주해, 태학사, 서울, 1997년
4. 《산수간에 집을 짓고》，서유구, 안대회 옮김, 돌베개, 서울, 2005년
5. 《朝鮮支那文化と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第二部論纂第一輯, 田保橋潔編, 刀江書院, 1934
6. <清代北京的俄羅斯館>, 《百科知識》第6期, 蔡鴻生, 1986년
7. 《北京歷史地圖集》，侯仁之, 北京出版社, 北京, 1988년
8. 《燕京叢考》，北京古籍出版社, 北京, 1991년
9. 《加摹乾隆京城全圖》，北京市古建築研究所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資料中心, 北京燕山出版社, 北京, 1996년
10. 《北京近代建築史》，張復合, 清華大學出版社, 北京, 2004년

# A Study on the Chinese Architectural View Point of Realist Hong Daeyong and Joseon Embassy in Beijing

Han, Dong-soo

(Asistanc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Graduated school of Architecture)

## Abstract

This paper is focused on Damheonseo(湛軒書), an anthology written by Hong Daeyong, and I deal with Chinese Architectural views which he had experienced in his itinerary to Beijing, and the vivid pictures of Joseonkwan (called the Koryo or Joseon Embassy) located in Beijing at that time. He was a scholar of great erudition over astronomy, mathematics, military science, politics, and so on. He was interested in practical sciences at early time, and criticized secular scholars full of vanity who had presented purposeless articles. In his age of 35, Qianlong(乾隆) 30 (1764, Youngjo 41), he, a military escort, accompanied by Hong Uk, Joseon envoy and his uncle. Before his itinerary, he self-studied Chinese. Also, during a long journey he got new experiences and information around each area, deviating his group whenever he had some times. He could get more variant experiences than others because of his character full of curiosity, and his observations from the vivid lives of the time helped us get various views between Chinese and Korean architecture. Likewise, although he denounced Qing(清) scathingly as a barbarian, he mentioned several poin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chitecture at that time.

First of all, totally Chinese architecture had strong rational and practical points. Secondly, based on bountiful products, buildings along streets shown in Chinese city had sophisticated compositions, and luxurious and magnificent appearances. Thirdly, using the brick from walls to houses was so universal. Fourthly, the layouts of building with three- or four-closed courtyard had very orderly shapes, and the structure of street was also so arranged. Finally, because of stand-up lives, the scales and appearances of interior space were even more extended, and storages were less developed than those of Joseon.

As another points, I found that Joseonkwan was moved next to Shushangguan(庶常館)from Huidongnanguan(會同南館) around Hanlimyuan(翰林院), and had been remodeled into a house with Korean custom in using the inner spaces, although it was followed by a closed courtyard style. Likewise, I recognized that Ondols were sure to be established in all temporary houses during the journey to Qing, and felt their strong traditional residential custom in such mentions. Now that the past pictures have disappeared and ways of life and our values have been largely changed, this study has very important meaning in comparing the ancient Chinese and Korean architecture.

---

Keywords : Joseon Dynasty, Realist, Hongdaeyong, Chinese Architecture , Joseon Embassy

---